

##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근현대 예술에 나타난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오성호\*\*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이 신구약 정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근현대 문화 속의 예술 작품(이미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주제 및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한다. 보다 넓게는 원시 복음과 관련되면서 타락 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구속사의 맥을 형성한다. 신약은 이러한 구약적 이해를 유지하며, 아브라함을 독생자를 내어 주는 하나님에 대한 모형으로, 순종하는 이삭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러진 숫양을 십자가 사건에서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다. 구출 받은 이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이다. 또한 신약은 아브라함을 믿음 및 순종과 부활신앙의 모델로 삼는다. 이삭 번제 사건을 회화화한 작품들 가운데 카라바조는 이삭의 내면적 고통과 공포에 초점을 맞추며,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한다. 그는 세상의 가장 속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이 나타남을 형상화한다. 렘브란트는 화풍과 그림에서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삭을 이상화하여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한다. 유대인 화가 샤갈은 번제로 드러지는 이삭 및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통해 유대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표현한다.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조차 신구약 성경의 다면적 모형론이라는 세밀한 신학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샤갈은 성경신학적 이해와는 더욱 거리감을 갖는다.

주제어 : 이삭 번제, 아케다, 창세기 22장, 성경신학, 근현대 기독교 미술, 예술 비평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428).

\*\* 총신대학교 교수

2016년 6월 5일 접수, 6월 20일 최종수정, 6월 28일 게재확정

## 1. 서론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그의 하나님 신앙의 의미와 그의 인간적인 고민과 신앙적 결단에 대해 잘 드러내고 있으며, 구약 자체는 물론 신구약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사적 흐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또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난 이삭 번제 이야기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삭이 번제로 도살되는 순간에 구출되고 대신 양이 번제로 드려졌으므로, 구출 받은 이삭의 모습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대리 속죄를 이룸을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성취된다. 신약에서 이삭 번제 이야기는 개인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본으로 작용한다.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독교 문명 속에 나타난 홀로코스트적이고 야만적인 인신제사 행위로 평가 절하하는 비판이 없지는 않으나(김성규, 2016),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기독교 자체의 형성을 위해서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및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면 이 이삭 번제의 이야기는 기독교 이외의 영역인 일반 문화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영향을 끼쳐 왔는가? 특히 근현대 예술에서는 이삭 번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왔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구약에서 매우 흥미 있는 이 이삭 번제 이야기는 일반 문화 속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이삭 번제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한번만 검색을 하여도 3-400여개 이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삭 번제 이야기가 서양의 역사와 근현대 문화 속에 수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삭 번제 이야기는 극적인 요소가 강렬하므로 많은 예술가들의 주제가 되어 왔다(고혜이, 2007: 122). 본 연구는 먼저 구약과 신약에서 이삭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 나서, 특별히 근현대 예술에서 이삭 번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표현되었는지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짧은 연구에서 예술 전체 속에서의 이삭 번제의 영향과 흔적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삭 번제에 관한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유명한 근현대 작품들을 남긴 가장 대표적인 화가로서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 - 1610),<sup>1)</sup>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 - 1669),<sup>2)</sup> 샤갈(Marc Chagall; 1887-1885)<sup>3)</sup> 세 사람의 이삭 번제에 관한 작품을 선정하여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그 외에서도 수많은 화가들과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있다. 또한 이 작품들에 대하여 간헐적인 연구들이 종종 나타난다(Wacome, 2016: 142-177; 배철현, 2011; 이석우, 2005; 고종희, 1998; De Capoa, 2009; 고혜이, 2008; Bertone, 2014; 배철현, 2015).<sup>4)</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종종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회화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신학적 또는 성경신학적 관점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깊고 충분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단편적인 한두 개의 작품에 대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예술 작품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평이란 작품에 대하여 “자신만의 어휘와 독특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Barrett, 2004: 5), 성경학자로서의 독특한 목소리로, 즉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삭 번제에 관한 예술 작품과 예술가들을 해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 II.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의 성경신학적 이해

### 1. 구약적 맥락에서의 이삭 번제 이해

창세기 22장(1-19절)의 이삭 번제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한다(1-2절).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1) <https://en.wikipedia.org/wiki/Caravaggio> (2016.06.22 접속).

2) <https://en.wikipedia.org/wiki/Rembrandt> (2016.06.22 접속).

3) [https://en.wikipedia.org/wiki/Marc\\_Chagall](https://en.wikipedia.org/wiki/Marc_Chagall) (2016.06.22 접속).

4) 그 가운데 어윈(Irwin)의 논문(2014)은 중세와 근대 초기의 독일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이삭 번제와 관련된 작품들 가운데 특히 두 개의 시각 예술 작품을 포함하여 다수의 연극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브링크(Brink, 2002: 140ff.)는 초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일찍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 모리아 산이 바라다 보이는 산 밑에 와서는 사환들을 남겨두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운 이삭만을 데리고 산을 오른다(3-6절). 길을 가는 도중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한다(7-8절).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벌여놓고 나무를 쌓아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하는 순간 천사의 개입으로 중단하고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숫양을 번제로 드리며, 그 곳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 짓는다(9-14절).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약속(특히, 12:1-3)을 새롭게 하신다(15-19절).

이 이삭 번제 이야기는 아브라함 사이클(11:27-22:24)의 절정이다(Wenham, 1994: 100; Bergen, 1990: 313-326).<sup>5)</sup> 이삭 번제 사건의 인접문맥으로서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12:1-3).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씨(자손)와 땅 및 복에 초점을 맞춘다(송제근, 2005: 15). 민족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12:4).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간다(12:4; 히 11:8).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씨와 땅에 관한 이전 약속의 구체화로서 이 땅을 네 자손(씨)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으며(12:7), 13-14장에서는 조카 롯과 헤어짐으로써 롯이 그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을 내려놓게 된다. 15장에서 그는 민족(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을 기대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못별과 같이 많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자, 이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15:6). 이로써 씨에 관한 문제가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롯 혹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15:4)로 구체화된다.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서 쪼갠 고기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며(15:18), 그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땅의 문제가 구체화된다(15:18-21). 그러나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사라의 제안으로 그녀의 종 하갈을 취하여 이

5) 아브라함 사이클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는 25:1-11에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스마엘을 낳음으로써 또 다시 씨의 문제가 혼란에 빠진다(16:2). 이에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고(17:9-10),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에게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신다(17:16, 19).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18-19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신다(18:14). 그러나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므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어 씨의 문제가 또 결정적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위기를 극복한다(20:6-7). 21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지 25년 만인 100세에 이삭을 얻으나,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므로써 씨의 위기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타난다(22:1). 22장의 이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12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의 결산이며, 따라서 아브라함 사이클의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난 12장, 15장, 17장, 21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하계상, 2014: 91; Sama, 1989: 150; Alexander, 1983: 17-22; 왕대일, 2001: 219-220).

아브라함 사이클의 구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심(12장)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호의(15, 17장) 및 아들의 탄생(21-22장)이 핵심적 주제들임을 말해준다.<sup>6)</sup>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선대와 후대의 양 족보 이야기가 감싸는 구조를 하고 있으며 (a-a'),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12장과 2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두 기둥을 형성하면서 믿음의 주제가 아브라함 사이클의 핵심 주제임을 나

6) 아브라함 사이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a, 11:27-32(테라의 후에); B, 12:1-9(아들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 C, 12:10-20(막간 - 이방적 환경: 사라를 누이라 속임/하나님의 보호); D, 13:1-18(소돔에 거하는 롯); E, 14:1-24(소돔과 롯에 관계하는 아브라함); F, 15:1-16:16(아브라함을 향한 언약-하나님 편에서의 언약 서약); F', 17:1-18:15(하나님을 향한 언약-아브라함 편에서의 언약 서약); E', 18:16-33(소돔과 롯에 관계하는 아브라함); D', 19:1-38(소돔에서 탈출하는 롯); C', 20:1-18(막간 - 이방적 환경: 사라를 누이라 속임/하나님의 보호); B', 21:1-22:19(아들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여정의 절정); a', 22:20-24(나홀의 후에). 하계상(2014: 96-97)은 위 도표의 C와 D 및 D'와 C'를 하나로 묶고 15-16장을 두 개로 나누어 16장이 아브라함 사이클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이 몇몇이 있으나, 이런 분석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브라함 사이클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 사이클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해방신학적 견해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아브라함 사이클의 구조에 관한 다른 분석으로는 Wenham, 1995: 98; Coats, 1983: 97-102; Sutherland, 1983: 337-343; Goldingay, 1998: 148을 참조할 것.

타넨다(B-B'). 이 두 장은 “너는 가라”(12:1//22:2)라는 구약에 나타난 유일하고 독특한 표현으로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12:4//22:3ff.)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12:2-3//22:15-18) 등이 연결점으로 기능한다(Williamson, 2000: 217-219). 12장에서의 “가라”는 명령은 믿음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과거와의 단절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가는 것임을 보여주며, 22장의 “가라”는 명령은 믿음이란 미래와의 단절로서 미래의 모든 보장과 인간적인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낸다(Wenham, 2001: 205).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드러내 준다.

또한 포클만은 아브라함 사이클을 시간적 표지라는 관점에서 동심원적 구조로 분석하였다.<sup>7)</sup> 그의 분석에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서자 이스마엘의 죽음이 감싸고 있는 (A-A') 아브라함의 이야기(B-B'; 75세-175세)는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 숫자는 구조의 핵심에서 다시 등장하여 100세에 자식을 낳는 아브라함의 기적을 드러낸다(X). 시간 구조상 핵심인 17:17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불가능성을 확인하며, 따라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그 자신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따라서 위의 두 구조를 종합할 때, 아브라함 사이클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의심과 불가능성 가운데서도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으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재확증하시며, 그 약속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는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게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과 전능성을 아브라함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7) Fokkelmann, 1989: 101. 포클만의 구조 분석은 다음과 같다: A, 데라의 죽음(205세; 11:32); B, 아브라함이 하란 떠남(75세; 12:4); C, 사라, 입양시도(아브라함 85세; 16:3); D, 하갈, 이스마엘 낳음(아브라함 86세; 16:16); E,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아브라함 99세; 17:1); X, 아브라함의 웃음과 불신앙(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7:17); E', 할레 행함(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세; 17:24-25); D', 이삭 탄생(아브라함 100세; 21:5); C', 사라가 127세에 죽음(23:1-2); B', 아브라함의 죽음(175세; 25:7); A', 이스마엘의 죽음(137세; 25:17).

약속을 계속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구체화시키며 결국에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자손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신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하게 된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주제는 보다 넓은 맥락으로까지 확장된다. 원시 역사와 관련하여 볼 때, 이 아브라함 사이클에서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인 원시 복음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는 후손(씨)에 관한 약속(창 3:15, 12:7)의 연속성 때문이다. 아담의 타락 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다(창세기 3장).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3:15)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인류의 타락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적대감을 드러내신다(Robertson, 1995: 100-107). 첫째는, 너(뱀, 즉 뱀 이면의 사탄)와 여자와의 적대감이다. 여기서 여자는 인류를 상징한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서의 관계가 세워졌으나,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 사이에 적대감을 두심으로써 이제 인간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연다. 둘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적대감이다. 이는 4-5장의 맥락에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사이의 적대감을 말한다. 이는 타락한 자들 가운데 구원 받은 자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인류는 언제나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두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적대감이 존재해 왔다. 셋째는, 뱀 즉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적대감이다. 이 “후손”(אֲחֵי)에 관한 약속은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에 따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관한 약속과 연결되며(12:7, 15:4-5, 17:5-7; 22:17-18), 다윗에 대한 약속(삼하 7:12-16)을 통하여 신약의 메시아에게서 성취된다.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적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 원시복음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반복되고 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씨의 약속은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복음에서의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재확증인 것이다.

창세기 22장(1-19절)은 아브라함 사이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1절의 “그 일들 후에”는 이삭 번제 이야기를 씨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아브라함 사이클 속에 정초시킨다.<sup>8)</sup>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2절)이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명령이 시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윤리성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의심을 불식시켜주며, 이삭 번제 이야기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이교의 신들의 이야기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sup>9)</sup> 하나님은 이삭 번제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차후의 분석에서 보듯이 이삭 번제의 이야기는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으로 작용하므로,<sup>10)</sup>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예비하실 자신의 계획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삭 번제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도 사라와 의논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사라에게 얘기했을 경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한 사라가 반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브라함은 밤새 번민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에 옮긴다. 그가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도 심적으로는 수많은 의심과 갈등을 경험했을 수 있다(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 한다. 그때 천사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8) 그 일들은 무엇보다도 21장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의미할 것이다. Wenham, 2001: 225.

9) 인신 제사의 관점에서의 이삭 번제 사건에 관한 연구로서는 특별히 Noort, 2002와 방석중, 2002를 참조할 것. 그러나 창세기의 기사는 근본적으로 인신 제사와는 거리가 멀다.

10) 요 3:16의 “독생자”(모노게네스)와 예수의 수세 장면 및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서의 “아가페토스”는 모두 창 22:2에서의 이삭에 대한 호칭과 관련된다. 또한 롬 8:32에서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는 창 22:12, 16을 상기시킨다.



수풀에 걸린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또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의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의 믿음과 순종과 같음을 드러낸다. 그는 이삭에게 사실의 전모를 숨김으로써 갈등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번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번제물로 지정하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임을 드러내며, 사실상 그의 대답은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모리아 산에서 숫양이 준비될 것을 함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이 이야기에는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엿보인다. 이 때의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웬햄(Wenham)은 22장의 이야기가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아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10대라고 추정한다(Wenham, 2001: 225). 유대 문헌은 25세, 37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를 추정하기도 한다(Thackeray, 1961: 113; Neofiti I 22:8; Vermes, 1961: 197). 그런데, 이삭이 “아이”라고 표현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갔던 것을 고려할 때 2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만일 그렇다면 힘으로 하자면 120세의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겼을 청년인데,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에도, 그를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도, 그리고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할 때조차도 그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사랑했던 것처럼 보이며, 그는 끝까지 순종했다. 자신이 번제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삭의 순종은 본문에 암시되어 있을 뿐 명시되지는 않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한 것이다(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이삭 번제 이야기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지만, 창세기 본문 안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리라”를 의미하므로(Wenham, 2001: 228?), 이는 골고다 언덕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모리아는 후에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이며(대하 3:1),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성전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또한 골고다 언덕은 모리아 산과 동일한 산이다. 둘째는, “모리아” 또한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을 의

미하는 말이므로 동일하게 끌고다 언덕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22:8)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발언으로 기능한다.

결론적으로, 이삭 번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및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아담의 타락 후에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난 씨(후손)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며, 구속사적 맥락에 놓인다.

## 2. 이삭 번제 이야기의 신약적 이해

이삭 번제 이야기는 신약성경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 및 암시되면서,<sup>11)</sup> 신약은 이삭 번제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구속사적 성취에 관한 구약의 이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모범적인 신앙의 인물로 묘사한다. 먼저, 신약에 나타난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는 모형론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이삭과 관련된다(이삭-예수 모형론). 로마서 8:32의 언어(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는 강력하게 창세기 22:12, 16(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을 떠올리게 한다(Daly, 1977: 67; Davies and Chilton, 1978: 530; Schoeps, 1946: 16; Wood, 1968: 587). 로마서 8:32에서의 바울의 생각의 배경이 되는 십자가 사건과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의 이미지는 서로를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는 행동의 이미지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Swetnam, 1981: 20; Childs, 1992: 396).<sup>12)</sup> 창세기 22장은 구약성경

11) 이삭 번제 이야기의 신약적 수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연구에 관해서는 Oh, 2016을 보라. 거기서 저자는 이삭 번제 사건에서 이삭이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유대교적 견해인 아케다(Aqedah) 신학이 신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에 대해 반론하고 있다. 여기서 아케다(ἁγία)는 원래 ‘묶음, 묶다’(binding)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삭 번제 사건을 지칭하였으나 유대 문헌에서는 속죄 개념을 포함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12) dyxixy“(only) 는 창 22:2, 12, 16에서 사랑 받는 자(ἀγαπητός)로 번역되지만, 독생자(μονογενής)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삿 11:34, 시 22:21). Davies and Chilton, 1978: 531; Swetnam, 1981: 21. Fitzmyer, 2002: 213.

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관계적 모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sup>13)</sup> 더욱이 우리가 종종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여러 가지로 창세기 22장에서의 이삭과 병행을 이룬다. 즉, 이삭은 나무를 짊어졌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Schoeps, 1946: 387).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이삭은 제단 위에 올려졌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듯 이삭도 그러했다. 모벌리(Moberly, 2001: 133)에 따르면 “바울이 창세기 22장을 의도적으로 암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성부 및 성자가 아브라함 및 이삭과 모형을론적으로 병행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하는 관계는 신약성경에 또 다시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세례와 변화산 사건에서 볼 수 있다. 마가복음 1:11의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사용된 언어 “내 사랑하는 아들”(ὁ υἱό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은 창세기 22:16을 반영한다(Richardson, 1958: 180). 또한 그 세례 장면의 평행본문들 및 변화산 사건(9:7)과 그 병행 본문들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의 신현 모티프 또한 창세기 22장과 공명을 이루고 있다(Daly, 1977: 68; Vermes, 1961: 223).<sup>14)</sup> 마가복음 1:11에서처럼 요한복음 3:16에서 사용된 ‘독생자(only begotten Son)’ 혹은 ‘사랑받는(beloved)’ 이란 표현은 아마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아들 호칭에서 발견된다(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Swetnam, 1981: 20; cf. Daly, 1977: 73). 따라서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혹은 독생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

고난 받는 예수도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모습과 관련될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 19:17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가는 모습의 반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경우와는 달리 이삭의 경우 속죄적 성격은 보장되지 않는다. 속죄에 관한 한, 이삭이 숫양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숫양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아래를 보라). 그러나 그릭스비(Grigsby, 1982: 59)의 주장과는 달리, 요한복음

13) LXX Gen. 22:2, 12, 16의 ἀγαπητός[ἄγαπητος]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리킨다. 종종 ἄγαπητος(사랑 받는 자)의 번역으로서의 아가페토스(ἀγαπητός)는 그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킨다(시 60:7[LXX 59:7; Eng 60:5]; 108:7 [LXX 107:7; Eng 108:6]; 아마도 시 127:2[LXX 126:2; Eng. 127:2]; 사 26:17; 렘 38:20). 암 8:10, 스펀 12:10 및 렘 6:26[ἄγαπητος]에서는, 그것은 아버지와 독자 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며, 스펀 13:6[ἄγαπητος]에서는 우정을 의미한다.

14) 마 12:18과 막 12:6도 아가페토스 때문에 70인경 창22장과 연결될 수 있다. 그라시(Grassi, 1982)에 계서처럼, 막 14:36에서의 아바 아버지도 또한 창22장의 이삭 번제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

1:29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삭 혹은 창세기 22장의 숫양과 무관하다.<sup>15)</sup> 왜냐하면 데이비스(Davies, 1979: 60-62)가 입증했듯이 이삭이 묶인 방식은 상번제의 방식이지 유월절 양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창세기 22장은 이삭-유월절 어린양의 연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요한은 1:29, 19:14, 29, 36절에서, 예수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묘사한다(Grigsby, 1982: 54).<sup>16)</sup> 그러나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은 이삭과는 무관하다.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 죽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니라 번제로 드러진 숫양을 지시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는 창세기 22:8, 13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숫양의 예고를 성취한다(Richardson, 1958: 228). 버메스(Vermes, 1961: 225)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새언약)는 창세기 22:8의 약속의 성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을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로 이삭이 아니라 숫양에게서 속죄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것은 이삭-예수 모형론이 아니라 숫양-그리스도 모형론(ram-Christ typology)이다. 이삭은 단지 나무를 씹어지는 것과 순종함으로 제단에 올라가는 것에서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sup>17)</sup> 그는 사실상 죽지 않고 숫양이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다. 희생된 숫양 대신에 이삭은 구출되었다. 데이비스(Davies, 1982: 655-657)에 따르면, 사르디스의 멜리토(Melito of Sardis)는 이삭과 예수의 병행 관계를 규정하면서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오직 죽음을 준비한다는 면에서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을 제공한다.”

15) 그에게는 “이삭의 희생적 죽음은 유월절 희생의 속죄적이면서도 동시에 예기적인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새 이삭(new Isaac)으로서의 희생이므로 요한복음 3:16은 기독교적 아케다에 대한 완벽한 요한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지지될 수 없다.

16) 1:29에서,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어린양이라고 불리며, 이는 나중에 다시 나타나며(요 6:45-46, 19:14, 29, 36), 죽음을 당한다(5:6, 9). [그는 또한 사 53장의 고난 받는 종이 예수의 모델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19:14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과 연결되는데, 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신학을 의도적으로 드러낸다(55). 19:29에서는, 식초를 머금은 스폰지를 예수에게 운반하는 우슬초는 출 12:22을 상기시킨다(57). 19:36에서는, 부러지지 않은 뼈들은 유월절 어린양을 상기시킨다(출 12:10, 46, 민 9:12; p.58). 고로 요한은 유월절 어린양-예수 모형론을 이들 구절들에서 채택한다.

17) 한편, 쇼웁스(Schoeps, 1946: 390-391)는 로마서 8:32은 창세기 22장의 기독교적 『재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로마서 5:9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케다의 영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희생적 죽음의 관점에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다.

고 간주한다. 따라서 희생적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기독교인의 모형이다. 로마서 9:7-8(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과 갈라디아서 4:28(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은 이러한 이삭-기독교인 모형론을 나타낸다(Schoeps, 1946: 386; Wood, 1968: 589).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씨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므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약의 본문들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유비적으로 언급한다. 히브리서 11:17-19은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함으로써 창세기 22장에서 신적 개입에 의해 이삭이 구출된 것과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연결을 짓고 있다(Wood, 1968: 588). 로마서 4:16-25 역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한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것임을 논증한다. 우드(Wood, 1968: 588)에게는 이것은 부활 모티프이므로, 이삭 모형론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의 견해와 같이 이삭이 죽음에 넘겨졌고 그의 순종이 속죄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달리(Daly, 1977: 72) 역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매우 가치 있는 탁월한 구속적 행위’로 여기며 여기에 포함된 부활 모티프가 이삭 번제가 속죄능력이 있다는 유대교적 견해인 아케다를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음에 의한 칭의의 주제를 다루며, 특히 로마서 4:17(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은 실제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부활 모티프로서 고린도전서 15:4에서의 ‘사흘 만에’라는 구절 또한 창세기 22:4(제3일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결심하고 길을 나선 것이 이삭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그가 제단에서 구출된 것은 제3일에 살아난 셈이 된다. 그 문구는 호세아 6:2(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과 레위기 23:10-11(곡물의 첫 이삭을 ‘안식일 이튿날에’ 여호와께 바치는 규례)에서도 다시 나타난다(Gill, Gen.

22; Wood, 1968: 588). 고린도전서 15:20(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은 이 레위기 본문에서의 성별 의식 (ritual)을 유비적으로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표현한다. 또한 야고보서 2:21-23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Daly, 1977: 67).<sup>18)</sup>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지 이삭의 자기 희생이 아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창세기 15:6의 그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한다.<sup>19)</sup>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보상(창 22:17-18)은 창세기 15:6의 성취이며 재확인인데, 그것은 은혜로(즉 약속으로) 주어졌었다. 결론적으로 몇몇 본문들이 부활 모티프와 관련하여 창세기 22장과 모형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22:16-17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신약에서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아케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다알(Dahl)의 견해는 지나친 것이다. 그(Dahl, 1969: 25)와는 달리 갈라디아서 3:13-14과 창세기 22장의 연관성은 너무 사변적일 뿐더러 기껏해야 간접적이라고 보여진다.<sup>20)</sup> 비록 갈라디아서 3:13-14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케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이클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주어져 왔던 약속의 성취이다. 특히 앞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22:16-17의 축복은 12:2-3의 축복과 평행을 이루므로 애초에 주신 약속의 재확증이다.

로마서 8:32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τὰ πάντα ἡμῖ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된 종말론적 유산이라 볼 수 있다(Dahl, 1969: 18). 또한 로마서 4:13에 세상의 상속자는 창세기 22:17-18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Schwartz, 1983: 264). 그러나 이것은 단지 창세기 22:17-18의 약속에만 국한된 성취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약속의 성취이다(창 12:1-3, 13:5, 15:8, 17:8, 26:4). 비록 하나님이 창세기

18) 약 2:21-23,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19)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20) 여기서 대체한다는 개념은 이사야 53장과 더 관련된다. 나무와 수풀 사이를 연관 짓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상상이며, 사실 이 나무는 신명기 21:23을 지시한다.

22:16-18에서의 그의 약속을 신약에서 이루셨지만, 그 성취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오래 전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의 목적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창세기 22장의 성취가 아니라, 전에 아브라함에게(창 12; 15; 17장)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아담에게 주신(창 3:15) 약속의 성취이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약속된 ‘자손’의 연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신약에 나타난 이삭 번제 이야기는 구약적 이해를 반영한다. 이삭 번제 이야기는 신약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고난 받는 모습 속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짐으로 인해 그가 살아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모험론적으로 성취된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는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축복들은 이삭 번제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서라기 보다는 창세기 12장 이후의 복을 주시겠다는 반복적인 약속의 성취이며,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복음의 성취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다. 신약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며 성도의 신앙과 순종에 대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는 그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이 이삭 번제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및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을 반복하며,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약적 관점을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

### III. 근현대 예술 속에 나타난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이야기(이미지)

성경의 내용과 주제를 회화로 표현하는 성경화가는 성경의 독자, 시각적 주석가,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갖는다(김학철, 2011: 259-86). 성경의 독자로서의 성경화가는 자신이 속한 예술가 집단 및 신앙적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시각적 주석가로서는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시각적 이

미지로 주석하며, 예술가로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발견한 통찰을 미적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김학철, 2011: 282).<sup>21)</sup>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화가는 성경 본문에 관한 자신의 관점에서의 통찰과 해석을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카라바조(1603), 램브란트(1634), 샤갈(1966)의 이삭 번제에 관한 그림들을 각각 분석한다. 특히 본인은 예술가로서의 심미적 관점보다는 예술가가 성경의 독자와 시각적 주석가라는 관점에서 화가가 그들의 그림 속에서 성경신학적 관점의 주제들과 등장인물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혹은 표현하지 못했는지, 이삭 번제의 사건이 어떻게 독특하게 이해되었고 어떤 요소가 강조되었는지에 관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sup>22)</sup> 각 화가의 그림 분석에 앞서 개인적인, 예술적인,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각 화가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미지로 표현했는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 1. 카라바조

### (1) 카라바조의 개인적, 신앙적, 예술적 배경

질 랑베르(Giles Lambert, 2010)에 따르면 화가로서의 카라바조는 추방된 예술가, 길 위의 혁명가, 명암의 대가로 평가된다. 괴팍한 성격의 광기 어린 모습이었던 카라바조는 늘 말썽을 일으키는 불한당이였다. 그는 늘 음습한 로마의 뒷골목을 헤매는 집시, 거지, 매춘부, 험잡꾼, 부랑아들과 어울렸고, 이들이 그의 작품에 성자의 모습들로 등장했다. 그는 로마의 밤거리를 깡패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을 하기 일췌였고, 여러 번 체포 구금되기도 하였으며, 그의 삶은 폭행, 결투, 도피, 살인, 투옥 등의 연속이었다(김상근, 2005: 347). 그는 동성애와 소아성애를 했다고 추정되며(Lambert, 2010: 7), 자신의 작품을 비난했다고 혹은 테니스를 치는 상대방이 속임수를 쓴다고 칼

---

21) 김학철은 성경 이야기 속의 당시의 지평과 오늘날의 화가와 관객의 지평을 연결하여 자신과 관객들을 성경 이야기 속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성경의 독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시각적 주석가로서의 역할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2) 김진명(2015: 13-40)은 성경화가의 그림에 나타난 성경해석과 성경신학적 주석 작업을 통한 해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술과 성경신학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며 본문에 대한 통섭적 해석을 통한 성경 본문의 미학적 성경해석을 위한 주석방법론을 제안하고자 시도한다.



부림을 하기도 하였다(Lambert, 2010: 69). 마침내 살인죄로 쫓기는 몸이 되어 추방된 카라바조는 도피생활 도중 로마 남쪽의 한 해변에서 불행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점은 그의 내면의 중요한 한 단면을 드러내며, 어렸을 때의 상처와 가난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아마도 6세쯤 페스트로 인하여 한꺼번에 그의 아버지 및 할아버지와 삼촌을 잃으면서 어머니와 다섯 아이들만 남겨져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 이것은 그에게 가난과 크나큰 상처를 가져왔고, 그는 그 자신의 내면에 고통과 분노를 안은 채 살아가게 된다. 가족 안에서 사랑과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던 그는 늘 내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늘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는 그의 과일 그림들 속에 썩은 과일과 벌레 먹은 과일 및 마른 이파리를 즐겨 그려 넣었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병든 바쿠스>와 <다윗과 골리앗>은 이러한 그의 자화상일 수 있다. 이지현(2011: 1159-78)은 카라바조가 그의 작품에서 극단적인 잔혹함이나 폭력성, 극단적 어두움과 상처, 죽음을 연상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의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회화를 파괴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평가되는 카라바조는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혁신적인 화가로 평가되며, 그를 통해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회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Lambert, 2010: 7). 그는 선배들의 화풍인 마니에리즘(매너리즘, 기교주의)(박건택, 2014: 94)을 부자연스럽고 감상적이며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격렬하게 맞서 싸우며 롬바르디아 화풍에 영향을 받아 연극적인 사실주의라는 화풍을 창조한다.<sup>23)</sup> 그는 한 주제를 선택할 때 가장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다. 카라바조는 사실주의와 심미주의가 융합된 바로크 미술의 도래를 알린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르네상스의 사실주의와 가톨릭적인 종교 미술의 가시성을 함께 보여주는데 성공했다(박건택, 2014: 102).

카라바조는 테네브리즘(Tenebrism)의 창시자로서 빛의 대가로 평가된다.<sup>24)</sup> 로베르토 롱기(Roberto Longhi)에 따르면, “사람들은 카라바조 출신의 미켈란젤로를 두고 빛의 대가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리베라도, 베르메르도, 라 투르도,

23) 브리칸티는 “카라바조 이후 새로운 회화가 시작되었다. 그가 일으킨 혁명은 미술가와 그가 바라보는 대상 사이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한다(Lambert, 2010: 8).

24) 테네브리즘은 어두운 색조와 밝은 분위기의 대조로 극적 효과를 나타내는 명암법(Chiaroscuro)을 뛰어 넘어 극단적인 명암대비를 사용하여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이지현, 2011: 1160).

렘브란트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또한 들라크루아와 쿠르베, 마네의 그림도 달라졌을 것이다.”(Lambert, 2010: 15). 자신의 화풍을 변혁시켜서 바로크 미술 혹은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재편했던 인물로서 카라바조의 화풍은 렘브란트,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y Velázquez), 리베라(Jose Ribera) 등에 의해 17세기 유럽 미술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김상근, 2005: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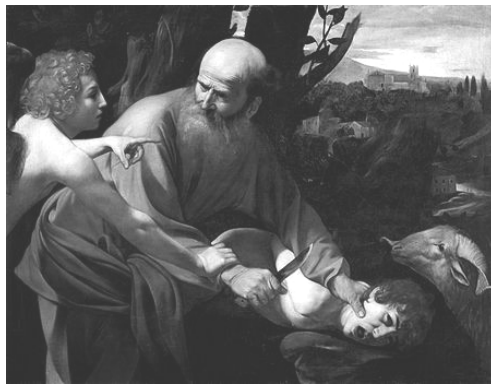
중세 말기인 16세기 후반 종교화는 가톨릭 교회의 회복이라는 이념으로 신앙심 고취를 위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곤 했으나, 카라바조는 형식주의에 치우친 매너리즘(기교주의)의 시류를 거부했다. 카라바조는 가톨릭 세계의 화가라고 할 수 있으나, 종교개혁 이후의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반동 종교개혁의 정신을 공유한 화가로 평가된다. 김상근(2005: 22)에 의하면, 그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인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고 있다. 말하자면,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는 가톨릭 교회를 위한 화가였으나, 카라바조는 종교개혁 이후의 분열된 교회의 신학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통합적으로 담아내었던 화가이다.

## (2) 카라바조의 <이삭 번제>(1603)의 해설과 평가

카라바조의 <이삭 번제>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왼손으로는 등 쪽에 팔이 묶인 아들 이삭의 목을 누르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날이 선 칼을 들고 곧 이삭의 목을 향하여 내리쳐질 것 같은 긴박함을 보인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은 그의 단호한 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De Capoa, 2009: 100). 알몸의 이삭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려 있으며, 얼굴은 관객을 향하여 보이고, 그의 눈은 관객의 눈과 시선이 일치하며, 입은 놀란 듯 혹은 비명을 지르는 듯 벌린 채 있다. 이삭의 모습은 매우 사실적이며 생동감을 주고 있다(고혜이, 2008: 122).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천사는 아브라함의 곁에 서서(그의 몸의 대부분은 화면 밖에 위치해 있는 채)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이삭의 머리맡에 있는 양을 가리키고 있다. 이삭의 머리 바로 위쪽에 이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에서 숫양은 머리만을 드러낸 채, 마치 자기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러져야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천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쳐다보고 있다. 특히 양의 시선은 아브라함과 천사를 지향하며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는 듯

한 모습이다.

이렇게 세 주인공(아브라함, 이삭, 천사)과 숫양의 모습은 빛을 받고 있어서 밝게 드러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큰 고목나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배경은 매우 어둡게 처리되어 등장인물에 쏟아지는 빛과 배경에 나타나는 어둠의 대조가 뚜렷하다. 다만 오른쪽 상단에 약간 어두운 회색빛의 하늘과 산의 능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에는 탑이 있는 저택 혹은 수도원과 거기서부터 떨어진 곳에 백향목의 능선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빈 곳에는 전원풍의 집들이 매우 어두운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시대라기보다는 화가의 시대의 자연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1] 카라바조의 <이삭 번제><sup>25)</sup>

이러한 이삭 번제의 주제는 피렌체 성당의 세레당 대문에 장식할 청동 부조 작품을 위한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와 기베르티(Lorenzo Ghiberti)의 경선 이후에 남성 누드와 스릴감 있는 장면 묘사를 위한 재료로 애용되었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인물의 숫자를 세명의 주역으로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밝은 톤과 오른쪽에 펼쳐지는 중요한 배경과 함께 아주 극적인 행동을 재현하고 있다(Puglisi, 2010: 224). 카라바조의 극적 순간의 재현은 브루넬레스키의 도상을 따른 것이다(Ginanneschi, 2007: 144). 카라바조는 수평 구도(horizontal format)와 근접 묘사(close-up view)를 특징적으로 사

25) Year: 1603; Type: Oil on canvas; Dimensions: 104×135 cm; Location: Uffizi Museum, Florence, Italy. [https://en.wikipedia.org/wiki/Sacrifice\\_of\\_Isaac\\_\(Caravaggio\)](https://en.wikipedia.org/wiki/Sacrifice_of_Isaac_(Caravaggio)).

용하며, 그의 <이삭 번제>는 지극히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Lambert, 2010: 55). 이 작품에서 오른쪽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때문에 배경 오른쪽 풍경에서의 성과 들판의 윤곽이 흐릿하게 된 것은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방의 회화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Ginanneschi, 2007: 144). 어두운 방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카라바조가 5년 후에 이렇게 명확한 톤을 재기했다는 것이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배경이 역시 동일하게 예상 밖이다. 그는 자연주의적인 동시에 암시적인 방식으로 배경을 설정한다. 흐릿한 전경은 투스카니의 숲과 언덕이 있는 지형을 상기 시킨다. 이삭의 머리 뒤에는 통나무 더미가 죽음을 경고하고 있고, 천사의 머리 위에서 월계수 잎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영원을 상징한다. <이삭 번제>는 파리의 대주교로 임명되어 로마를 떠날, 그리고 나중에 교황 우르반 8세로 취임하게 될, 바르베리니(Maffeo Barberini)에 의해 주문된 것으로 추정된다(Puglisi, 2010: 224; 김상근, 2005: 172, 389). 월계수는 바르베리니 가문의 상징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과 전경의 투스카니풍은 카라바조의 후원자인 바르베리니를 의도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다(Puglisi, 2010: 224).

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첫째,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혁신적인 점은 천사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Ginanneschi, 2007: 144). 렘브란트와 샤갈 및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서 천사는 대개 하늘을 날고 있는 반면,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천사는 아브라함 곁에 서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미리 보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해된다(Bertone, 2014)(여기서 카라바조는 창세기 본문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름에 의해 아브라함의 이삭 도살이 저지된 것을 실감나게 물리적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라바조는 이 속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에게는 성직자와 권력자와 부자에게만 종교와 거룩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는 일상 속에 만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어중이 떠중이들을 성자의 모습으로 둔갑시켜 표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가장 속된 것들이 거룩한 영역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26)</sup> 그는 빛과 어둠의

26) 카라바조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머리의 아브라함 역을 하는 모델은 그의 <서제에 있는 성 제물>에 서의 제물 및 <마태와 천사>에서 마태로 분하고 있는 동일한 인물이다. Puglisi, 2010: 238; 김상근, 2005: 224.

처리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한다. 박건택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극단적인 명암대비를 통해서 “회화와 초월의 새 관계 설립의 창설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종교 무대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사실주의와 초자연적 기원을 알리는 빛의 처리 사이에 대립을, 아니 그보다 모순을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상의 신성화를 감행한다.”(박건택, 2014: 99).

둘째, 카라바조는 사실주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묘사로 이삭이 경험하는 내면적 공포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라바조의 작품에는 아버지에게 신성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삭의 불쌍한 고통이 강조된다. 아들 이삭의 곁에 질린 채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삭의 눈은 관객의 눈과 일치하며, 김상근(2005: 172)에 따르면, 관객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듯하다. 카라바조의 작품은 종교적인 메시지 자체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죽음과 고통이라는 인간 본연의 경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김상근, 2005: 345-346).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예민함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과 유년기의 체험을 통해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이삭의 순종의 태도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특히 유대교적 이해와는 매우 상반되어 보인다(Thackeray, 1961: 113). 그러나 신약에서 십자가 상에서 절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평가된다.

셋째, 카라바조의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묘사한다. 제단 위에서 목을 내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삭 곁에 숫양이 위치하며, 천사는 숫양을 가리키고 있다. 카라바조의 <이삭 번제>에 나타난 이삭의 모델은 그의 작품 <큐피드>와 <세레 요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Puglisi, 2010: 205-206). 그런데 <세레 요한>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아니라 숫양을 안고 있는데, 이는 동일하게 <이삭 번제>에서 이삭과 함께 나타나는 숫양의 모습과 일치한다. 퍼글리시(Puglisi)에 따르면, 세레 요한이 당시 화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어린 양(lamb)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숫양(ram)과 함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상징을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에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러지는 숫양과 연결 짓고자 의도하는 것이다(Puglisi, 2010: 206).<sup>27)</sup> 결국에 카라바조의 <이삭 번제>에서의 숫양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삭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자기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sup>28)</sup> 카라바조에게 이삭, 숫양, 그리스도는 동일시된다(천사가 숫양을 지시하는 것도

27) 전통적으로는 세레 요한을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인물로 재현한다.

화가의 해석적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카라바조의 아브라함은 매우 순종적이며, 이삭은 죽음에 맞닥뜨려 공포를 경험하지만,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능한다. 그럼으로써 카라바조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과 순종의 인물로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씨에 관한 구속사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신학에서 이삭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세밀한 신학을 표현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2. 렘브란트

### (1) 화가의 개인적, 신앙적, 예술적 배경

렘브란트는 화란의 개혁주의적 전통의 개신교 가정에서 양육 받은 신앙인이었다(박건택, 2014: 118; Bonafoux, 1997: 14). 그의 부모는 종교적 확신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어머니는 렘브란트가 여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화폭에 담았을 만큼 그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14세에 입학했던 국립 라이덴대학에서 학문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에는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에 관해 시험을 치르는 등 철저한 기독교 생활을 훈련 받았다. 특히 그는 칼빈의 기독교 사상을 배웠다(서성록, 2007: 26-27).

렘브란트는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라는 명암법의 대가라고 평가된다. 이것은 chiaro(빛 또는 밝음)와 oscuro(어둠)의 합성어로 카라바조에게서처럼 빛과 어둠의 뚜렷한 대조를 사용하여 회화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sup>29)</sup> 그는 키아로스쿠로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카라바조의 명암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삭 번제의 그림에 있어서도 그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빛을 주로 인물에 집중하여 투사하였지만, 렘브란트는 인물뿐만 아니라 벽이나 사물들에게까지 확

28) 데 카포아도 역시 카라바조의 <이삭 번제>에서의 솟양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De Capoa, 2009: 100.

29) 김종진(2009: 15)에 따르면, 렘브란트의 키아로스쿠로 방식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밝게 빛나게 하[고] 나머지 일체는 어두운 암흑의 공간 속에 묻어버림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신비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김학철(2008: 250)은 “키아로스쿠로는 빛과 어둠의 강한 명암 대비를 가리키는데, 나머지 부분은 짙은 그림자 안에 처리하는 기법이다.”라고 정의한다.

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카라바조에 비하여 빛과 어둠 사이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윤곽선이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서성록, 2007: 22-24).

박건택(2014: 102)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신성한 교회 미술”로서의 중세 미술과 “종교적 소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종교 미술”로서의 르네상스 미술 사이에서 사실주의와 심미주의를 바로크 미술 속에서 새롭게 융합하여 칼빈적인 심미주의를 표현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의 미술의 길을 열어 놓은 화가로 평가된다. 렘브란트는 예술미와 종교성을 그의 작품에 균형 있게 담아내고 있다. 그는 예술적 재능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배어 있으며 특히 화란의 개혁주의적인 전통의 신학이 반영되어 있다(서성록, 2007: 32-33).

## (2) 렘브란트의 <이삭 번제>(1634)의 해설과 평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짙은 갈색의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은 제사장과 같이 무릎 꿇은 채로 왼손으로는 이삭의 얼굴을 가리고, 칼을 잡았던 오른손은 천사의 의해 붙잡힘으로 인해 칼을 떨어뜨리고 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시커먼 배경과 혼합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신체는 마치 아브라함이 어둠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다. 아브라함의 표정은 무표정한 듯이 매우 절제되어 있으나 놀라서 굳어진 표정이며, 너무나 갑작스런 천사의 출현과 그의 저지로 인하여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당황하며 놀란 듯하다. 너무나 극적인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의 등장이 조금만 늦었다 라도 이삭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서성록, 2007: 71). 허리 주변에 천을 둘렀을 뿐 완전한 나체의 이삭은 등 뒤로 양 손이 묶인 채 장작더미 위에 눕혀져 있으며, 아브라함의 큰 왼손이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어 눈뿐만 아니라 코와 입을 가리고 있으므로 이삭의 표정과 내면적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삭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목을 뒤로 젖히고 긴 목을 드러내고 칼을 기다리고 있다. 소매에 금빛 계통의 천을 두르고 있는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천사는 다급하게 날아와 이삭의 목을 치려는 아브라함의 팔을 잡고 저지한다. 온화한 천사의 표정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나, 긴급함 긴박함을 전달하고 있다. 천사의 왼편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Bertone, 2014). 아브라함은 천사를 바라보

고 있고, 천사의 시선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얼굴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천사 뒤로부터 하늘에서 비치는 빛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비치며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듯하다(이것은 구약 본문에 대한 화가의 독창적인 표현이다). 나체의 이삭은 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발광하는 듯이 가장 밝게 빛나는 이삭의 신체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과 강렬하게 대조되고 있다.

아브라함의 뒤에는 두 그루의 큰 고목나무가 있으며 그 그림자로 인해 배경은 검은 색으로 감추어지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옆으로 멀리 보이는 배경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배경은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듯 매우 어둡고 멀리 있는 풍경은 선명하지 않고 거의 매우 짙은 어두운 색으로 인해 희미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짙은 회색 하늘과 어두운 색의 야산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체화되어 어두운 배경을 구성하고 있다. 천사의 윗 편으로 약간 드러난 하늘은 짙은 먹구름이 끼 있어서 이삭 번제의 장면과 매우 대조적이다. 천사의 날개도 그림자로 인해 비교적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 아브라함의 왼쪽 편에 거의 구분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불이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천사와 이삭의 몸에 비치는 빛과 아브라함의 손과 얼굴에 어렴풋이 비치는 빛, 그리고 어두운 배경 사이에 세 단계의 명암의 대조가 나타난다. 이삭의 몸(다리와 옆구리)의 왼편은 그림자로 인해 살짝 어두운 빛을 띠고 있으나 이삭의 몸은 화면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평가하자면, 첫째, 렘브란트의 그림은 카라바조의 것과 매우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두 그림에서 똑같이 천사와 아브라함은 파마를 한 듯한 곱슬머리이다. 또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브라함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표정은 비슷해 보인다. 두 그림에서 모두 등장인물들이 동일하고, 극적인 순간을 포착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Bertone, 2014). 또한 그림에 나타난 빛과 어둠 사이의 대조 역시 카라바조의 것을 닮았다. 이런 점들은 그가 카라바조의 화풍과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기사에서 천사의 음성적 부름에 의한 아브라함의 행동 저지를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아 저지시키는 물리적 행동으로 표현한 것도 카라바조와 동일한 화가적 해석을 반영한다.





[그림2] 렘브란트의 <이삭 번제><sup>30)</sup>

둘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떨어지는 칼이 강조되었다.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칼은 천사의 적시의 개입으로 인하여 도살이 중지된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여러 단계들의 사건을 하나의 화면에 그림으로써 정적인 특성의 회화를 통해 동적이고 연쇄적인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sup>31)</sup> <이삭의 희생>에서도 도살을 하려는 아브라함을 천사가 저지하는 결정적인 한 순간을 포착해서 회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 사건을 극화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옷을 벗겨 장작더미 위에 얹어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눕히고, 왼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덮어 목을 드러낸 다음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이삭의 목을 치려고 높이 치켜

30) Year: 1635; Type: Oil on canvas; Dimension: 193x132 cm; Location: Hermitage Museum, St. Petersburg, Russia; <http://www.arthermitage.org/Rembrandt-Harmensz-van-Rijn/Sacrifice-of-Isaac.html>

31) <눈멀게 되는 삼손>에서는 삼손 외에 네 명의 블레셋 군사들과 들릴라가 등장한다. 이런 여러 인물들의 행동은 각기 삼손의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의 전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런 모든 행동이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각 인물들의 행동은 시간에 걸친 사건 진행 과정의 상이한 단계를 가리켜준다. 그들은 삼손의 방에 들어와 그의 머리털을 몰래 자른 후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를 결박하여 족쇄를 채우고 나서 눈을 파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감상자는 삼손이 눈멀게 되는 사건의 전체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감상하게 된다(Bockemühl, 2006: 16-21).

든 것을, 천사가 달려와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므로 아브라함이 놀라 고개를 천사에게로 돌리고 손은 힘없이 퍼지므로 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가는 이 절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그리면서 이 전체의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해 내고 있다. 허공에 떠 있는 칼은 감상자로 하여금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Bockemühl, 2006: 16). 시간과 사건의 경과를 표현하고 그 절정의 순간을 포착하여 묘사하는 것은 렘브란트의 특징이다(Bockemühl, 2006: 18). 그리하여 렘브란트는 동적인 사건의 특성을 정적인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Bockemühl, 2006: 21). 이런 점은 백성들의 곤경과 위기의 순간에 적절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렘브란트의 독창적 해석이다.

셋째,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삭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며,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드러낸다. 버튼(Bertone, 2016)은 카라바조의 이삭은 매우 공포스럽고 실성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반면에 렘브란트의 이삭은 그의 알몸과 열린 가슴에 내려오는 빛이 함축하는 것처럼 매우 순결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와콤(Wacome, 2016: 147-149)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써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약의 그리스도로서 표현되고 있다고 이해하며, 이에 대하여 일곱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이삭의 몸은 흠이 없고 완전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제의에 사용되는 짐승과 같은 수준을 만족시킨다. 둘째, 이삭이 사실상 죽은 것처럼 표현되었다. 이삭은 어떤 반항이나 투쟁의 표시를 보이지 않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듯 고요한 모습이다. 아마도 이것은 이삭의 수동성과 전적인 순종을 의미할 것이다. 셋째, 이삭이 비스듬히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세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주제를 연상시키며, 허리에 두른 천은 십자가 상에서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넷째, 이삭은 얼굴이 없는 인물로 나타나며, 이는 그가 한 개인으로서라기 보다는 전형으로서의 인물임을 말해 준다. 다섯째, 이삭이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그의 몸이 영화롭게 된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신적인 광명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여섯째, 빛, 칼, 천사의 시각 등 모든 시각적 요소들이 이삭을 향하도록 인도한다. 일곱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이삭이 양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삭이 숫양으로 대체되었으나, 그림에서는 숫양이 누락되어 이삭이 숫양임을 함축한다.<sup>32)</sup> 이런 그녀의 근거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결론적으로 렘브란트의 이삭

32) 창세기 기사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숫양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

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떨어뜨리고 있는 칼은 손잡이가 있는 아주 날카롭게 베틀 칼로서, 그 끝은 이삭의 목을 향하고 있으며(Wacome, 2016: 146, 149), 그리스도께서 창을 받으신 가슴의 위치 아주 가까이에 닿아 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간 것뿐만 아니라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장작 위에 누운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된다.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대응되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반영된다(서성록, 2007: 72). 결론적으로,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은 매우 순종적이며,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이삭과 숫양과 그리스도는 동일시된다. 그러나 카라바조의 경우와 같이 이삭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 된다는 신약의 신학을 묘사하기에는 회화 자체의 한계가 있다.

### 3. 샤갈

#### (1) 화가의 개인적, 신앙적, 예술적 배경

샤갈은 러시아의 비테프스크(Vitebsk)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프랑스에 유학했고 나중에는 거기에 정착했던 화가이다. 샤갈은 고향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유대교적 정서로 인해 유대인들이 차별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경험했고, 나중에는 비테프스크가 나치에게 점령당하면서 학살과 핍박 등 유대인들이 겪는 참혹함을 경험했던 자로서 유대인 동포들을 향한 깊은 동정과 애정을 가졌던 자이다(Bohm-Duchen, 2003: 9-11). 그리하여 샤갈은 종종 특히 고난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담은 많은 그림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종탑의 모습과 성경 특히 구약성경의 이야기들과 예수의 모습을 고난 받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린 많은 그림을 남겼다.

박숙영(2006: 183-184)에 따르면, 샤갈은 신비주의적 유대교인 하시디즘(Hasidism)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유대교 신비철학자인 카발(Kabbale)이 창시한 하시디즘 유대교는 만유재신론(panteism)에 근거하며 인간과 자연의 일체와 조화를 주장한다(이환진, 2014a: 127). 이 종파는 의식화된 정통 유대교에 반대하여 종교적 감성을 통해 하

---

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은 아마 이삭과 숫양의 동일시를 말하거나(Wacome) 숫양보다는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말하는 듯하다.

나눔과 교통하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종교적 목표로 삼는 종파이다. 그래서 짐승들과 물고기 및 식물 등 만물이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받은 샤갈은 매우 신비적이고 범신론적인 사상과 표현들을 화폭에 나타내고 있다.

샤갈이 주로 활동했던 프랑스는 당시 전위예술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으며, 샤갈은 그 시기에 입체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을 경험했으나, 그 자신은 뭐라고 특별히 규정지을 수 없는 독특한 화풍을 구성하며 본인 자신도 어떤 특별한 부류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Cox, 2003: 42).

## (2) 샤갈의 <이삭 번제>(1966)의 해설과 평가

샤갈의 <이삭 번제>의 하단부의 중앙에는 이삭이 평안한 모습으로 장작더미 위에 누워 있고, 그 위편에서 아브라함이 왼손은 이삭의 허벅지에 얹고 오른손은 칼은 든 채로 얼굴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서 천사를 바라보고 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표정은 천사의 갑작스런 개입에 놀라는 표정이다. 그림에서 이삭이 묶여있지 않은 것은 성경의 기사와 차이를 갖는다. 상단부의 중앙에는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전갈을 전달하고 있다. 그 천사의 뒤편에는 또 다른 흰 색의 천사가 표현되어 있다.<sup>33)</sup> 아브라함의 시선은 천사와 하나님을 동시에 보고 있다. 상단부의 오른쪽 편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과 또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흰색 천사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왼편 손으로는 그들을 가리키고 있다. 상단부의 왼편에는 나무 뒤에 숫양과 그 뒤에 손을 들어 탄식하며 이삭 번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라로 추정되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삭의 번제 사건을 나무 뒤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라는 비통합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 창세기에 따르면, 나무 뒤에 있는 양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은 뿔이 수풀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서 이삭 번제를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샤갈 그림 스타일의 특징은 주요 이미지 주변으로 추가적인 장면들을 배치함으로써 성경 이야기에 관한 일종의 미드라쉬 혹은 주석과 같은 기능을 하게

33) 뒤쪽(즉 왼편)에 있는 하얀 천사는 아마도 유대 전통에서 형상화가 금지된 하나님이거나(샤갈 뮤지엄, 오디오 가이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천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창 22:15).

한다는 것이다(Diglot, 2016: Part II).<sup>34)</sup> 좌측 상단의 천사와 우측하단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주된 이미지이며, 나머지는 성경 이야기에 대한 부가적인 해설이나 화가 자신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림3] 샤갈의 <이삭 번제><sup>35)</sup>

샤갈은 색채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다. 샤갈의 <이삭 번제> 그림은 색상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sup>36)</sup>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체를 구성하는 빨간색 부분으로서 선명하고 강한 느낌을 주며, 둘째는, 이삭의 상체를 구성하는 노란색 부분이며, 셋째는 십자가를 진 예수의 형상과 그 주변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구성하는 갈색 부분인데, 노란색과 갈색은 안정적인 분위기를 준다. 넷째는, 천사와 사라 및 양 등을 구성하는 파란색 부분으로서 역시 선명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박필제·박숙자, 2000: 72).<sup>37)</sup> 아브라함은 피의 색깔인 빨강색을 하고 있으며, 이삭 또한 불의 색깔인 빨강색

34) 배철현(2011: 81)에 따르면, 샤갈의 이삭 번제의 그림 상의 내러티브 전개는 좌측 상단의 두 천사 혹은 하나님과 천사의 모습, 우측 하단의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장면, 좌측 중앙의 나무 뒤에 있는 양과 하갈의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의 사람들의 모습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35) Year: 1966; Type: Oil on canvas; Dimensions: 235x230 cm; Location: Marc Chagall Museum, Nice, France; <http://www.wikiart.org/en/marc-chagall/the-sacrifice-of-isaac-1966>.

36) 혹은 그림의 상단부를 차지하는 천상의 일과 하단부를 차지하는 지상의 일 즉 이삭 번제와 신적 개입의 두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37) 파란색의 천사와 사라는 빨간색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점에서도 대조된다.

을 하고 있다. 배철현(2011: 80)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 주위에 두드러진 붉은 색은 “혼돈의 단계에서 질서의 단계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빨간색을 띠고 있는 것은 번제물을 태우는 불길에 치솟는 모습과 이삭을 죽이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의 흥분된 모습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삭의 상체를 구성하는 노란색은 “평화, 광명, 연대, 안전, 포근함, 환희” 등의 느낌을 전달하는 반면에 이삭의 하체를 구성하는 빨간색은 그가 이미 해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위쪽에 나타난(천사 등의 그림들의 주색깔인) 파랑은 평화를 상징한다.

샤갈의 그림을 평가하자면, 첫째, 샤갈은 이삭이 이미 해를 당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과 자세는 이전에 <천지 창조> 그림에서의 아담의 모습 및 <야곱의 꿈> 그림에서의 사다리 위에 있는 천사의 모습과 닮았다(배철현, 2011: 80; 샤갈 뮤지엄, 오디오 가이드).<sup>38)</sup> 그러나 이삭은 이미 피를 흘리며 불속에서 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는 유대인들의 나중 문헌에 이삭이 이미 죽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디글롯(Diglot)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왼손을 이삭의 허벅지에 얹고 오른손으로 칼을 가지며, 이삭의 생식기와 허벅지가 피로 젖은 모습은 창세기 17:10에서 할레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삭 번제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표정은 당황과 혼돈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오른손으로 잡은 칼의 손잡이 부분과 그의 손가락들 및 이삭의 하체가 피에 묻어 있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삭을 살해한 것으로 이해된다(Diglot, 2016: Part II). 이러한 견해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샤갈의 천사는, 카라마조나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모습에 반하여, 매우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디글롯(Diglot, 2016: Part II) 역시 천사의 도착은 너무 늦은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미 희생한 것이라고 이해한다.<sup>39)</sup> 카라마조나 렘브란트의 천사는 아브라함의 팔을 잡고 있는 반면에 샤갈의

38) <이삭의 희생>에서의 이삭의 모습은 <야곱의 꿈>에서의 사다리 위의 인물과 일면 유사하나 왼편 손의 위치는 차이가 나타난다. <천지창조>의 아담과 <이삭 번제>의 이삭은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에 관한 것으로, 샤갈 뮤지엄의 오디오 가이드(2016. 02)에 따르면 아담과 이삭의 자세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길 때가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므로 평안한 자세와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사는 팔이 너무 짧아서 아브라함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천사는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를 전달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천사가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은 이삭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심하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Diglot, 2016: Part III).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이삭이 결국에는 구출된다는 성경의 기사와 심각한 차별성을 나타낸다.

둘째, 유대인으로서의 샤갈은 이삭 번제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대인의 고난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한다. 배철현(2011: 80-81)은 샤갈의 예수 십자가 표상이 이삭 번제의 예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샤갈의 그림에서 상단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이며, 아기를 안은 여인은 마리아이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바라본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양 팔을 벌리고 있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은 마리아로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는 샤갈은 이삭 번제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얼핏보기에 일리가 있어 보이나, 샤갈의 경험과 사상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샤갈의 그림 중에 상단부 우측의 사람들에 대한 배철현의 해석은 피상적이라고 느껴지며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는 현저하게 차이를 나타낸다.

디글롯에 따르면, 샤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 화가들은 예수 십자가 책형의 이미지들을 그림에 포함할 때는 기독교 예술에서와는 달리(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고난과 핍박의 메시지를 전달려는 것이다.<sup>40)</sup> 샤갈 역시 도면 상단 우측에서 비테프스크에서 그가 만났던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한다. 이들에게서 십자가(예수)는 유대인들의 당하는 고난을 상징한다. 샤갈은 <골고다>, <황색 십자가>, <백색 십자가 책형> 등 예수의 십자가 수난에 관한 그림을 여러 개 그렸다. <백색 십자가 책형>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의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으며 허리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용 솔을 두르고 있다(박숙영, 2006: 202; 이환진, 2014b: 107). 이것은 구속적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예수임을 나타낸다(김현화, 2003:

39) 사젠트(Mark Sargent, 2012: 290)는 샤갈의 천사는 너무 늦게 도착했으며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아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이삭의 옆구리가 상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칼은 피를 묻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40) 예를 들면, Adolf Gottlieb, Emmanuel Mané-Katz, Max Weber, Samuel Bak, Mark Antokolsky, Max liebermann, Abraham Rattner 및 Mark Rothko. Diglot, 2016: Part IV.

34-37). 이 그림에 나타나는 집들은 그의 다른 그림들에서도 발견되며, 인물들은 <이삭 번제>의 우측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여기서의 배경은 “수정의 밤”(Kristalnacht)이라고 부르는 유대인 대학살 사건 당시에 나치에 의해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박무성, 2002: 182). 즉 십자가 책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고난 받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결국 <이삭 번제>에서의 십자가도 단지 유대인의 고난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다. 박건택(2014: 105) 역시 샤갈의 <백색 십자가 책형>의 십자가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받는 인간, 박해 받는 유대 백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샤갈의 <이삭 번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모습은 그의 다른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의 속죄적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샤갈 자신이 생을 통해 경험했던 나치즘 아래서의 유대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41)</sup> 마찬가지로 샤갈은 번제로 드러지는 이삭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위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42)</sup> 샤갈은 창세기 기사와는 달리, 솟양을 덩불에 뿔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무 뒤에서 이삭 번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다(Diglot, 2016: Part III).

뿐만 아니라 샤갈의 <이삭 번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에서 해방되는 유대인의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준다. 유대인들은 갈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십자가를 진 예수는 갈색 영역에서 파란색 영역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진행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샤갈의 바램과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샤갈은 신구약 성경 신학에서 이삭 번제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에 관해 관심이 없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약속과 성취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유대인인 샤갈은 그들의 민족적 관점에서 이삭 번제 사건을 바라보고, 단지 이

41) 이는 디글롯(Diglot, 2016: Part IV)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Chagall’s Jesus is rather a representation of all Jews over the generations who have endured affliction from the moral, political, and religious authorities of the world.”

42) 디글롯은 이삭의 몸에 나타난 노랑과 빨강은 나치의 화장터를 상징하는 불꽃의 색깔이라고 본다. 화면 상부의 갈색은 연기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재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빨간 색은 신약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 내려오고 있는 피를 상기시키는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그들의 자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번제로 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한다. Diglot, 2016: Part V.



삭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지금의 유대인들의 고난을 상징하고자 한다. 샤갈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유대인들을 꺾박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신 하나님이다. 다만 그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도우심으로 구원과 신적 보호를 향해 인도할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모델로서의 아브라함은 샤갈과는 거리가 멀고, 이삭도 순종의 모델이라기보다는 무고한 희생자일 뿐이다. 이러한 샤갈의 관점은 그의 개인적 종교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IV. 요약 및 결론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나이 많아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씨)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과 연결되며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천사의 개입으로 이삭의 희생이 중단되었지만, 이 이삭 번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는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나타난다. 120여세나 되는 늙은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및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성취 및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관점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이삭 번제 이야기는 여러 부분에서 신약에서 인용되거나 암시되고 있다. 롬8:32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22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까지 않고 내어준 아브라함의 모습과 일치한다(12,

16절). 신약에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르는 호칭을 반영한다(막 1:11, 요 3:16 등).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요 19:17)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을 반영하듯이 이삭의 순종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한다. 또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였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믿음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믿는 자들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다. 이삭은 번제로 드러지는 순간에 구출되고 대신 숫양이 번제로 드러졌으므로, 숫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삭은 제단에 올라가는 데까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롬 9:7-8과 갈 4:28은 이를 뒷받침한다. 신약은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물로 드린 이삭을 살리실 능력이 있다고 믿었음을 증언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본임을 강조한다(히 11:17-19, 롬 4:16-25). 부활 주제가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5:4의 “사흘 만에”도 창세기 22:4(제3일에)을 상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선 것이(예기된) 이삭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제3일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구출 받은 것은 그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유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고보서 2:21-23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믿음의 결과 당연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였음을 강조한다. 종종 학자들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구원 혹은 기업)이 이삭 번제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취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이번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의 생애 속에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약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닮았다; 순종하여 나무를 지고 가며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순종하여 나무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예표이다;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러지고 대신에 이삭은 구출 받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신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이다;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신자들의(그리스도 및 자신에 대한) 부활의 신앙에서 성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및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경 신학적 관점은 근현대 예술에서 유지되거나 혹은 무시된다. 본 연구는

근현대의 화가들 중에 특히 카라바조, 렘브란트, 샤갈의 이삭 번제에 관한 그림 속에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실주의와 심미주의를 융합하는 바로크 미술의 선구자 카라바조는 중세 말기/근대 초기의 가톨릭 세계의 화가로서 테네브리즘(명암법, 키아로스쿠로)의 창시자이며 빛의 대가였다. 매우 사실적이며 생동감을 주는 그의 이삭 번제 그림에서 혁신적인 점은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 아브라함 곁에 서 있음으로 인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혹은 거룩과 세속의 만남을 표현하며, 가난한 자들과 속된 자들에게도 거룩이 속할 수 있음을 표현한다. 또한 그의 그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삭이 입을 벌리고 겹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그가 인간의 내면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의 상처와 가난으로 인해 내면적인 불행을 간직하고 살았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절규와 상응한다. 또한 그의 그림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이삭 곁에 있는 숫양이 그의 다른 그림 <세례 요한>에서 동일한 숫양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라바조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이삭에 대한 그의 신앙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화란의 개혁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렘브란트는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명암법(키아로스쿠로)의 대가로서 칼빈적인 심미주의를 담아내는 개혁주의적 미술의 길을 열어놓은 화가이다. (그의 <이삭 번제> 그림에서도 카라바조의 영향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그림에서는 떨어지는 칼이 강조되어 적절한 천사의 개입으로 도살이 중지되는 순간을 포착하면서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을 강조한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삭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며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믿는 그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얼굴이 없는 전형으로서의 인물인 이삭은 그리스도와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적이며, 신적인 광명을 가장 많이 받아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진다.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숫양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이삭이 숫양임을 함축한다. 러시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샤갈은 신비주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화가로서 반유대교적 정서와 특히 나치체제하의 압제로 인해 유대인들이 학살과 핍박 및 차별과 고난을 당했던 것을 경험해 왔다. 샤갈의 <이삭 번제> 그림은 이삭이 이미 해를 당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샤갈의 이삭은 편안하게 누워 있으나 하체에는 피(도살)와 불(번제)을 상징하는 붉은 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사를 보면서 당

황하고 혼돈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완료했음을 함축하며 아브라함 자신도 불이 타는 듯이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샤갈의 천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시키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유대인으로서의 샤갈은 이삭 번제의 구속사적 의미에 관심이 없으며 예수 십자가 표상을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삭 자신도 대속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난당함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삭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성경 기사의 충실한 반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동포 유대인들의 현실의 반영이다. 샤갈 자신은 그런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그림에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이야기는 믿음의 모델을 제공하고,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는 모형론적 기능을 갖는다. 신약은 순종하는 이삭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삭 대신 번제로 드러진 숫양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적 죽음을 예표한다는 것을 증거한다. 숫양의 번제로 인해 구출 받은 이삭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 된다. 또한 이삭 번제 사건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예표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앙과 순종의 모델로서 칭송된다. 반동종교개혁적인 가톨릭 신앙을 가진 카라바조와 화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이삭 혹은 이삭의 번제는 신약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드러나고 있으나, 유대인 화가인 샤갈의 작품에서는 이삭 번제와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및 학살당함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에게조차 이삭 번제 사건이 갖는 다면적 모형론(이삭-그리스도; 이삭-기독교인; 숫양-그리스도)의 세밀한 신학을 표현해 내기에는 회화적 한계를 드러내며, 샤갈에게 있어서는 그의 개인적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적 메시아 모형론조차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고종희 (1998). 『명화로 읽는 성서: 성과 속을 넘나드는 화가들』. 서울: 한길아트.
- 고혜이, 하타 (2008). 『旧約聖書を美術で讀む』. 이원두 역. 『미술로 읽는 성경-구약 성서 편』. 서울: 홍익출판사.
- 김성규 (2016). “기독교 문명 속의 야만전통, 사람을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인신번제, 홀로코스트(Holocaust)의 기원(2) - 불에 태워 부처에게 바치는 소신공양(燒神供養)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홀로코스트의 야만적인 일치성.” [http://cafe.chosun.com/club.menu.bbs.read.screen?p\\_club\\_id=dreamview&p\\_menu\\_id=41&mes sage\\_id=758107](http://cafe.chosun.com/club.menu.bbs.read.screen?p_club_id=dreamview&p_menu_id=41&mes sage_id=758107).
- 김종진 (2009).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타난 빛과 공간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6). 12-19.
- 김학철 (2008). “[렘브란트 읽기(2)] 렘브란트가 이해한 성서.” 『기독교사상』. 52(2).
- 김현화 (2003). “현대미술에 나타난 ‘십자가 책형(Crucifixion)’의 의미.”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0. 21-55.
- 박건택 (2014). “기독교 이미지 신학의 역사적 고찰 (Ⅱ).” 『신학지남』. 90-124.
- 박무성 (2002). 『격동의 서양 20세기사』. 서울: 한울.
- 박숙영 (2006).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종교적 이미지의 이중성.” 『현대미술사연구』 20. 181-211.
- 박필제·박숙자 (2000). 『컬러 코디네이터를 위한 색채학 입문』. 서울: 형설.
- 방석중 (2002). “이삭제물연구.” 『神學과 世界』. 44. 5-21.
- 배철현 (2011). 『창세기, 샤갈이 그림으로 말하다』. 서울: 코바나컨텐츠.
- \_\_\_\_\_ (2015). “배철현의 성서 오디세이 - 예수의 위대한 질문⑰ 예술로 재해석하는 창세기의 비극 ‘아케다’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4740>. 월간중앙 2015.2.
- 서명수 (2003). “아케다(Aqedah) 이야기(창22:1-19)의 재해석.” 『구약논단』. 14. 7-25.
- 서성록 (2007).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송제근 (2005). 『오경과 구약의 언약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 왕대일 (2001). “구약 속의 신약, 신약 속의 구약 : 아케다(‘aqedah)와 골고다 - 창세기 22:1-19의 재해석.” 『신학사상』. 115. 211-236.
- 우진형 (2009).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22장1-19절의 편집비평적 접근.” 『구약논단』. 32. 132-149.

- 이석우 (2005). 『명화로 만나는 성경은 새롭다: 명화 속의 성경 코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이환진 (2014a). “홀로코스트와 마르크 샤갈의 십자가(1).” 『기독교사상』. 671. 121-33.
- \_\_\_\_\_ (2014b). “[시오니즘과 한국 기독교(4)] 홀로코스트와 마르크 샤갈의 십자가 (2).” 『기독교사상』. 672. 100-15.
- 하계상 (2014).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54.
- Alexander, T. D. (1983). “Genesis 22 and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JSOT* 25.
- Barrett, T. M. (2004). *Criticizing Art: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이태호 역. 『미술비평: 그림으로 읽는 즐거움』. 서울: 아트북스.
- Bergen, R. D. (1990). “The Role of Genesis 22:1-19 in the Abraham Cycle: A Computer-Assisted Textual Interpretation.” *Criswell Theological Review* 4. 313-326.
- Bertone, S. B. K. (2014). “The Sacrifice of Isaac.” October 3, 2014. <http://stabhumanities10.edublogs.org/2014/10/03/the-sacrifice-of-isaac-by-sarah-bauer-kurt-bertone/>.
- Bockemühl, M. (2006). *Rembrandt van Rijn*. 김병화 역. 『렘브란트 반 레인』. 서울: 마로니에 북스.
- Bohm-Duchen, M. (2003). *Chagall*, 남경태 역. 샤갈. Art&Ideas 12. 파주: 한길아트.
- Bonafoux, P. (1997). *Rembrandt, le clair, l'obscur*. 김택 역. 『렘브란트, 빛과 혼의 화가』. 서울: 시공사.
- Brink, E. van den (2002). “Abraham’s Sacrifice in Early Jewish and Early Christian Art.” In Noort, E. and E. J. C. Tigchelaar (Ed.). *The Sacrifice of Isaac: The Aqedah (Genesis 22) and Its Interpretations*. Leiden; Boston: Brill.
- Childs, B. S. (1992).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London: SCM Press.
- Coats, G. W. (1983).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97-102.
- Cox, N. (2003). *Cubism*. 천수원 역. 『입체주의』. Art&Ideas 11. 파주: 한길아트.
- Dahl, N. A. (1969). “The Atonement—An Adequate Reward for the Aqedah?(Ro 8:32).” In Ellis, E. E. and M. Wilcox. *Neotestamentica et Semitica: Studies in Honor of Matthew Black*. Edinburgh: T&T Clark.
- Daly, R. J., S. J. (1977). “The Soteriological Significance of the Sacrifice of Isaac.”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9.

- Davies, P. R. (1979). "Passover and the Dating of the Aqedah." *Journal of Jewish Studies* 30. 59-67.
- Davies, P. R. (1982). "Martyrdom and Redemption: On the Development of Isaac Typology in the Early Church." *Studia Patristica* 17. 652-658.
- Davies, P. R. and B. D. Chilton (1978). "The Aqedah: A Revised Tradition History."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0.
- De Capoa, C. (2009). 김숙 역. 『구약성서, 그림으로 읽기』. 서울: 도서출판 예경.
- Fitzmyer, J. A. S. J. (2002). "The Sacrifice of Isaac in Qumran Literature." *Biblica* 83. 211-229.
- Fokkelmann, J. P. (1989). Time and the Structure of the Abraham Cycle. In Woude, A. S. van der (Ed.). *New avenues in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 a collection of Old Testament studie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Oudtestamentisch Werkgezelschap and the retirement of prof. Dr. M.J. Mulder*. Leiden; New York: E. J. Brill.
- Gill, J. (2016). *Gill's Commentary*. <http://gill.biblecommenter.com/genesis/22.htm>.
- Ginanneschi, Elena (2007). *Museo del Uffizi Firenze*. 임동현 역. 『세계 미술관 기행: 우피치 미술관』. 서울: 마로니에북스.
- Goldingay, J. (1998). The Place of Ishmael. In *The World of Genesis: Persons, People, Perspectives*. JSOTSS. 25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Grigsby, B. H. (1982). "The Cross as an Expiatory Sacrifice in the Fourth Gospel." *JSNT* 15. 51-81.
- Irwin, S. Lissner (2014). "The Sacrifice of Isaac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German and Yiddish Works." A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New Brunswick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Lambert, G. and G. Néret (2010). *Caravaggio*. 문경자 역. 서울: 마로니에북스.
- Moberly, R. W. L. (2001). "Ancient and modern interpretations of Genesis 22." In *The Bible, Theology, and Faith: A Study of Abraham and Jesus*. Cambridge: CUP.
- Noort, E. (2002). "Genesis 22: Human Sacrifice and Theology in the Hebrew Bible." In Noort, Edward and Eibert J. C. Tigchelaar (Ed.). *The Sacrifice of Isaac: The Aqedah (Genesis 22) and Its Interpretations*. Leiden; Boston: Brill.
- Oh, A. (2014). "Early Jewish Understanding of the Sacrifice of Isaac."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93. 5-24.

- Oh, A. (2016). "Canonical Understanding of the Sacrifice of Isaac: The Influence of the Jewish Tradition." *HTS*. 72(3).
- Puglisi, C. (2010). *Caravaggio*. New York: Phaidon Press Limited.
- Richardson, A. (1958).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London.
- Sargent, M. (2012). "Our Brother Abraham: The 'Sacrifice' in Films by Tarkovsky and Majidi." In Hunt, S. (Ed.). *Perspectives on Our Father Abraham*. Grand Rapids, MI: Eerdmans.
- Sarna, N. M. (1989).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 Schoeps, H. J. (1946). "The Sacrifice of Isaac in Paul's Theology." *JBL* 65: 385-392.
- Schwartz, D. R. (1983). "Two Pauline Allusions to the Redemptive Mechanism of the Crucifixion." *JBL* 102(2). 259-268.
- Spiegel, S. (1979). *The Last Trial: On the Legend and Lore of the Command to Abraham to Offer Isaac as a Sacrifice. The Akedah*. New York: Behrman House, Inc.
- Sutherland, D. (1983). The Organization of the Abraham Promise Narratives. *ZAW* 95.
- Swetnam, J. (1981). *Jesus and Isaac: A Study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in the Light of the Akedah*.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 Thackeray, H. St. J. (tr.) (1961). *Josephu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in Nine Volumes: Jewish Antiquities, Book I-IV, Vol. IV*.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ermes, G. (1961). "Redemption and Genesis 22." In *Scripture and Tradition in Judaism*. Leiden: E. J. Brill. 193-227.
- Wacome, K. (2016). "Fleshing Out the Sacrifice of Isaac: Rembrandt, Caravaggio and Chagall." <http://home.nwciowa.edu/wacome/chapter6.pdf>. 142-177.
- Wenham, G. J. (1995). "The Akedah: A Paradigm of Sacrifice." In Wright, David P. et al. *Pomegranates Golden Bells: Studies in Biblical, Jewish, and Near Eastern Ritual, Law, and Literature in Honor of J. Milgrom*. 93-102. Winona Lake: Eisenbrauns.
- Wenham, G. J. (2001). *Genesis 16-50*. 『창세기 16-50』. WBC 성경주석.



- Williamson, P. R. (2000). *Abraham, Israel and the Nations: The Patriarchal Promise and its Covenantal Development in Genesis*. JSOTSup 3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Wood, J. E. (1968). "Isaac Typology in the New Testament." *NTS* 14. 583-589.
- Young, F. (1994). "Typology." In Porter, S. E. et al. *Crossing the Boundaries: Essays in Biblical Interpretation*. 29-48.

## Abstract

# A Study of the Image of the Sacrifice of Isaac in Genesis 22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rom the Perspective of Biblical Theology

Abraham S. Oh (Chongshin University and Seminary)

This paper studies the sacrifice of Isaac (SI) in Genesis 22 in the context of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Biblical theology, how it is expressed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story emphasizes the promise and fulfillment of God and the faith and obedience of Abraham in its immediate context the Abraham cycle of Genesis. In the wider context, Isaac the seed of Abraham is in line with salvation history in which God promises and fulfills the Proto-evangelism (Gen. 3:15) as the salvific plan to resolve the problem of human sins after the Fall. The NT, keeping the understanding of the SI of the OT, recognizes Abraham who withholds not his beloved only son as the type of God who withholds not his only begotten Son. The NT sees obedient Isaac as the type of the obedient Christ, and the ram being offered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Isaac as the type of Christ dying on the Cross. Isaac the seed of Abraham being delivered because of the replaced ram functions as the type of the Christians being saved by the vicarious death of Christ. The NT also presents Abraham as a model of faith praising his faith and obedience, and especially faith in resurrection. Among the paintings that represent the SI event as image, Caravaggio focuses on the internal fear and pains of Isaac and understands Isaac as the type of Christ. He presents that the holiness and salvation of God is displayed in the most secular of the world. Rembrandt, being influenced by Caravaggio in the style of painting or the painting representation of the SI, idealizes Isaac in his painting and sees him as the type of Christ. But, Jewish painter Chagall, symbolically presenting the SI, appropriates both Isaac being offered as a burnt

offering and Christ carrying the Cross as the means to disclose the suffering and persecution of his fellow Jews. Even Caravaggio and Rembrandt still have limitations to express the delicate Biblical theology of multi-dimension, and Chagall is much more far from the Biblical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SI.

Key Words: sacrifice of Isaac, Aqedah, Genesis 22, Biblical theology, modern and contemporary Christian art, art criticism

